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 Corruption of the People's Perception Index

김 택(Kim, Taek)*

ABSTRACT

Police corruption has multitudinous causes, assumes many different patterns and cannot be accurately measured as if iceberg model under sea. Corruption is, in its simplest terms, the abuse of power most often for personal gain or for the benefit of a group to which one owes allegiance. This paper achieves a difference between causes and remedies in policemen in Korea. It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corruption and anti corruption. While the policemen corruption are easily difficult to measure, some studies suggest that its polic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ould include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o examine perceptions of peoples towards corrupted cops behavior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al factors: 1) meanings of corruption 2) individual factors 3) socio-organizational factors 3) legal- legislative factors 4) 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attempts to test the following five hypothesis.

First, What is difference of corruption perceptions? Second, What is individual difference of corruption perceptions? Third, What is difference of socio-organizational factors? Fourth, What is difference of legal-legislative factors? Fifth, What is difference of demographic factors? To Conclude, This Paper will be devoted that police corruption hamper organizational transparency and integrity. Especially, Police Corruption incidence has been found organization culture which forgive their sin and criminals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people perception on the police corruption. People think that corruption causes discretion, power, culture, ethics. Although, It is different between policemen and people but causes and effects are not many different. So,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Central Agency will be trying to eradicate all corruption problem and patterns importantly.

Key words: Police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tegrity, Petty Corruption, Grand Corruption

*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Jung Won University)

I. 서론

1. 연구목적

공직부패는 수면하의 빙산처럼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체제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괴물적 존재라고 본다. 우리나라 공직부패는 과거의 생계형비리에서 최근 권력형비리로 변모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룰 경찰부패는 경찰수뇌부의 권력부패만이 아니라 하위 경찰관도 이에 가세하여 부정과 비리를 만들어 낸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고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유발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부패를 연구할 때 경찰청이나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치를 인용하거나 정부부처별 징계 통계치를 단순 비교 분석하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경찰의 부패도는 종합 3위이다. 외부청렴도는 7.60으로 3등급이다. 경찰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서 8.23이라고 한다. 정책고객평가는 6.59로 3등급의 저조한 결과를 갖고 있다.(김택, 2016, 국민권익위원회, 2015)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경찰부패의 요인이나 영향이 특정 항목을 가지고 전화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질문자와 응답자간 신뢰성과 비밀유지가 떨어지고 있고 일관성 있는 조사가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경찰서비스나 친절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전화설문은 객관적인 조사 분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이질 못하고 기관별 청렴도 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패인식정도를 규명하는데 한계에 봉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찰공무원부패의 요인과 인식을 살펴보고 경찰부패의 그 유의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의 청렴도는 2등급내지 3등급인데 이에 경찰청은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일선경찰관들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적실성이 뒤떨어져서 비효과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5)

이 같은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경찰관에만 설문조사를 한 것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중심으로 인식도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경찰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시민들의 관점에서 인식한 박사논문을 참조하였으며 경찰의 부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분석에 기초를 둔 정부의 반부패정책이나 청렴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김택, 2016)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부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주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찰부패의 요인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여타 공무원 부패들처럼

유형이나 실태를 다면적이고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부패의 유착관계도 분석해야하지만 본 연구는 경찰부패의 원인에 국한해서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와 연구중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의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검증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의 부패인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패의 속성은 다양하고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경찰부패로 인식하는가’라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경찰부패문제를 다룸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부패인식과 요인의 차이와 의미를 통해 경찰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실증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하여 적실성 있고 유의미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적 실사구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들의 부패요인 분석을 살펴보기 위하여 500명의 시민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국무총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의 관계자의 자문 및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경찰부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방법을 적용,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토대로 하여서 시민의 경찰부패의 요인과 인식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찰 반부패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검토

경찰청(2011)의 “관심직원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는 경찰 내 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심직원관리를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부패나 비리 등 사고 위험도를 식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과학적 진단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본다. 박영주(2013)의 다른 연구인 “경찰의 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경찰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고 경찰의 청렴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부패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 주목하여 개인의 정계경험과 준법의식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징계가 있는 경찰관일수록 부패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의 식장화와 같은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철옥의 “경찰윤리학연구”(2012)는 경찰관으로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경찰에 대한 신뢰 상실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바람직한 경찰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동서양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과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경찰부패의 시민인식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다. 부패방지위원회(2004)의 “경찰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연구”는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방지 방안의 수립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이 방안으로 감사 감찰을 통한 적발 처벌과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중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과 시민과 공동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지역사회 경찰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옴부즈맨 설치 시민감사를 제시했다. 이하섭(2013)의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의 명령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이 경찰의 명령에 불복종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연구하였고 경찰부패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불복종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서 경찰부패에 대한 사전적 예방법과 사후적인 예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1999)은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부패의 원인을 법제도적측면, 윤리적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김택, 2016)(표1-1)

〈표1-1〉 경찰부패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자	요소	내 용
박영주(2013)	의식과 윤리교육	법의식강화와 윤리교육 중요성, 경찰공무원 채용시 인성교육강화
이하섭(2013)	시민인식	시민의 경찰의 불복종, 경찰부패에 대한 인식수준, 사전사후예방
문재명(2014)	법제도	이해충돌회피방안연구, 청렴교육강화 조직문화 인사고과개선
김상운(2012)	부패원인	경찰부패원인과 외부영향과의 관계 예방 반부패활동
박영주(2012)	경찰문화	경찰의 문화적 특성과 비밀주의 문화적환경, 거시적경찰문화와 중화기술
이상훈(2012)	법제도	경찰부패원인과 방지
임지영(2010)	청렴	청렴도방안, 인사승진제도, 반부패기구확립, 경찰위원회 태도의 변화
경찰청(2011)	제도	위반위반자에 대한 조치방안, 과학적진단프로그램
부패방지위원회(2004)	시민참여	경찰부패통제-시민참여 중요성, 지역사회경찰네트워크, 시민감시단 등 방안
최상일(2006)	경찰부패통제	계층절차의 조사방법을 활용, 부패통제 전략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 우선순위가 높은 통제 전략 강조
민형동 김연수(2007)	경찰부패 유형분석	경찰공무원의 부패 유형과 반부패통제 전략을 분석, 한국경찰의 반부패활동 연구
남형수(2009)	개인, 제도	경찰부패 영향요인을 분석, 경찰부패의 통제요인의 실효성을 검증
박상주(2006)	부패통제	경찰부패에 대한 적절한 유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부패통제 전략
홍태경(2011)	경찰일탈요인	경찰일탈요인, 개인적, 조직적, 처벌억제요인
김택(1999)	경찰부패원인	제도적측면 강조, 승진보수문제, 권한 남용, 윤리의식회박
조철옥(2012)	윤리적 측면	경찰윤리의 동서양적 측면에서 연구, 경찰신뢰연구
윤테범(2001)	구조적 측면	경찰부패의 부패구조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업무와 부패

3.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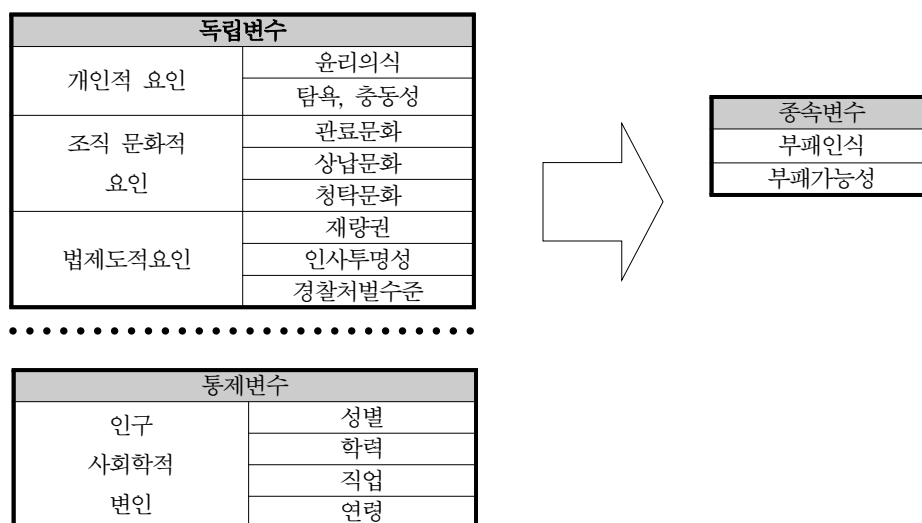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부패의 개인적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부패인식의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림 1-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한국경찰부패의 개인적 요인이 부패발생의 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부패요인에 따른 윤리의식, 개인적 탐욕, 청렴교육 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두 번째로 조직 문화적 요인은 청탁이나 뇌물제공, 부패 문화,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적 요인의 문화의 측면의 차이를 설계하였다. 세 번째로 법제도적 요인은 수사상의 재량권, 징계처벌 보수제도 등을 비교하였다. 경찰부패의 인식도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력수준, 연령, 학력 등이 하위변수가 된다. 또한 소액의 금품이나 식사 대가성이 부패에 미치는 지 그 인식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김택, 2016)

경찰부패의 연구모형은 시민들의 인식수준, 인식도, 발생원인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나나 났고 시민들은 개인적인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에 따라 부패차이가 있고 이러한 시민들의 부패요인별 차이는 부패원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고 경찰청렴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그림 1-1>

<그림 1-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한국 시민의 경찰부패인식에 따라 개인적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가설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김택, 2016)

가. 부패의미기준

[연구문제 1] 한국경찰부패의 부패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1-1. 금전에 대한 개인적 탐욕이나 동료의 묵인을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찰관으로서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1-2.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에 부패라고 인식하고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1-3. 금품수수의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부패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경찰부패 요인

[연구문제 2] 한국경찰 부패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부패 차이가 있는가?

[가설2-1] 개인적 요인

[가설2-1-1]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2] 개인의 탐욕이 높으면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을 것이다.

[가설2-1-3]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 부패가 많을 것이다.

[가설2-1-4] 경찰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연구문제 3] 한국경찰부패의 조직 문화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2-2] 조직 문화적 요인

[가설2-2-1]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설2-2-2]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있기에 발생한다.

[가설2-2-3]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

[가설2-2-4]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 관료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

[연구문제 4] 한국경찰부패의 법제도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2-3 법제도적 요인

[가설2-3-1] 부패통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2-3-2] 경찰은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2-3-3] 징계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2-3-4]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을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평가와 부패가능성은 경찰관 행태에 대한 응답자가 내리는 평가와 응답자 자신의 일탈가능성을 측정할 것이다. 사례는 Klockars(2000)와 윤일홍의(2009) Pogarsky와 Piquero(2004), 홍태경(2011)의 연구에서 도입하였다. 종속변수를 이변수로 변화하여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부패특성이다. 개인적 특성은 시민들의 경찰관의 부패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개인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조직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윤리의식이나 탐욕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직문화적 측면에서는 청탁문화 상납문화 등을 측정하였다. 끝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인사, 처벌, 재량권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기본요소에 따라 부패 특성이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문지와 표본추출

각 문항은 상관분석 및 다변량 분석 등을 위해 5-7점 척도로 구성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한 8개의 문항을 마련하였다.

경찰부패의 여러 변인들을 조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시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도, 충청도, 기타 지역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

본문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문항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부패요인과 인식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와 경찰관의 재직기간, 계급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인 ANOVA (one-way anova)분석을 실시한다. 법제도적 측면 등 가설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의 가설의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통계처리프로그램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김택, 2016)

Ⅲ.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 분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500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312명(62.4%)로 여자 188명(37.6%)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29세가 402명(80.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60세 이후는 8명(0.3%)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19-29세, 30-40세, 40-50세, 60세 이후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대학생이 399명(79.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공무원은 8명(1.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대학생, 회사원, 무직, 상업, 공무원, 농축산업 순으로 분포를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이 380명(76.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92명(18.4%), 전문대졸 23명(4.6%), 대학원 이상 5명(1.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88명(37.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전라도는 11명(2.2%)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경기, 서울, 충청도, 강원,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의 부패인식을 응답한 시민 조사대상자는 남자 대학생이면서 연령이 19-29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은 고졸이면서 지역

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경찰 부패인식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택, 2016)(표 3-1)

〈표 3-1〉 시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12	62.4
	여자	188	37.6
연령	19-29세	402	80.4
	30-40세	52	10.4
	40-50세	38	7.6
	60세 이후	8	1.6
직업	무직	27	5.4
	대학생	399	79.8
	상업	26	5.2
	공무원	8	1.6
	회사원	35	7.0
	농축산업	5	1.0
학력	고졸	380	76.0
	전문대졸	23	4.6
	대졸	92	18.4
	대학원 이상	5	1.0
지역	서울	133	26.6
	경기	188	37.6
	강원	45	9.0
	충청도	94	18.8
	경상도	29	5.8
	전라도	11	2.2
합계		500	100.0

2) 기술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경찰부패인식, 개인적 요인(부패의미 기준), 개인적 요인(경찰부패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등에 대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경찰부패 인식은 경찰 탐욕, 경찰 충동성, 경찰 금품수수 등 3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찰 금품수수의 평균값이 2.9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 충동성 2.78, 경찰 탐욕 2.57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부패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2.77, 표준편차가 0.90으로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경찰부패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요인(부패의미 기준)은 탐욕, 충동성, 금품수수 등 3개의 하위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충동성의 평균값이 3.5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금품수수 3.38, 탐욕 3.32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개인적

요인(부패의미 기준)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3.40, 표준편차가 1.15로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부패의미 기준에 대해서 대략 현금으로 25만 원 선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요인(경찰부패 요인)은 윤리의식, 탐욕, 충동성, 청렴교육 등 3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충동성의 평균값이 3.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탐욕 3.58, 청렴교육 3.52, 윤리의식 3.44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부패요인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3.57, 표준편차가 0.71로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경찰부패 요인에 대해서 대략 현금으로 25만 원 선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문화적 요인은 청탁문화, 상납문화, 조직문화, 알선청탁문화, 관료문화 등 5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알선청탁문화의 평균값이 3.61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납문화 3.60, 관료문화 3.55, 청탁문화 3.32, 조직문화 2.89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조직 문화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3.39, 표준편차가 0.58로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조직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적 요인은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 4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찰처벌수준의 평균값이 3.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량권 3.50, 인사투명성 3.42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법제도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3.54, 표준편차가 0.75로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법제도적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택,2016)(표3-2)

〈표 3-2〉 기술 통계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찰부패 인식	경찰탐욕	2.57	1.06
	경찰충동성	2.78	1.12
	경찰금품수수	2.96	1.12
	전체	2.77	0.90
개인적 요인 (부패의미기준)	탐욕	3.32	1.32
	충동성	3.50	1.20
	금품수수	3.38	1.26
	전체	3.40	1.15
개인적 요인 (경찰부패요인)	윤리의식	3.44	0.96
	탐욕	3.58	0.98
	충동성	3.74	0.95
	청렴교육	3.52	0.99
	전체	3.57	0.71
조직 문화적 요인	청탁문화	3.32	1.00
	상납문화	3.60	0.88
	조직문화	2.89	1.25
	알선청탁문화	3.61	0.91
	관료문화	3.55	0.91
	전체	3.39	0.58

법제도적 요인	부패통제가능성	3.56	1.02
	재량권	3.50	0.96
	경찰처벌수준	3.68	0.96
	인사투명성	3.42	1.19
	전체	3.54	0.75

3) 신뢰성분석

조사대상자의 경찰부패인식, 개인적 요인(부패의미 기준), 개인적 요인(경찰부패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등에 대해서 신뢰성분석을 수행하여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3) 경찰부패 인식은 경찰 탐욕, 경찰 충동성, 경찰 금품수수 등 3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찰 탐욕의 신뢰성이 0.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 금품수수 0.62, 경찰 충동성 0.56 순으로 신뢰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부패 인식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75로 보통 정도의 신뢰도를 보였다. 개인적 요인(부패의미 기준)은 탐욕, 충동성, 금품수수 등 3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충동성의 신뢰도가 0.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탐욕 0.85, 금품수수 0.84 순으로 신뢰도의 차이를 보였다. 개인적 요인(부패의미 기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8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 요인(경찰부패 요인)은 윤리의식, 탐욕, 충동성, 청렴교육 등 3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청렴교육의 신뢰도가 0.6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충동성 0.65, 탐욕 0.64, 윤리의식 0.63 순으로 신뢰도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부패요인의 전체 신뢰도는 0.70으로 보통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조직 문화적 요인은 청탁문화, 상납문화, 조직문화, 알선청탁문화, 관료문화 등 5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조직문화의 신뢰도가 0.6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납문화 0.41, 알선청탁문화 0.41, 청탁문화 0.40, 관료문화 0.40 순으로 신뢰도의 차이를 보였다. 조직 문화적 요인의 전체 신뢰도는 0.51로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법제도적 요인은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 4개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인사투명성의 신뢰도가 0.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량권 0.62, 경찰처벌수준 0.61, 부패통제가능성 0.60 순으로 신뢰도의 차이를 보였다. 법제도적 요인의 전체 신뢰도는 0.70으로 보통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김택,2016)

〈표 3-3〉 신뢰성분석 결과

구분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경찰부패 인식	경찰탐욕	0.79	0.75
	경찰충동성	0.56	
	경찰금품수수	0.62	
개인적 요인 (부패의미기준)	탐욕	0.85	0.89
	충동성	0.87	
	금품수수	0.84	
개인적 요인 (경찰부패요인)	윤리의식	0.63	0.70
	탐욕	0.64	
	충동성	0.65	
	침범교육	0.66	
조직문화적 요인	청탁문화	0.40	0.51
	상납문화	0.41	
	조직문화	0.63	
	알선청탁문화	0.41	
	관료문화	0.40	
법제도적 요인	부패통제가능성	0.60	0.70
	재량권	0.62	
	경찰처벌수준	0.61	
	인사투명성	0.71	

3. 연구 가설검증

1) 개인적 요인

(1) 경찰부패 인식

패의미 기준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명절 시 돈을 받아 경찰서 운영비를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부패행위로 생각한다.”라는 가설1-1을 설정하였고, “사건청탁으로 어느 정도 주어야 뇌물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2를 설정하였다. 또한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3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1-1, 가설1-2, 가설1-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부패의미기준의 하위변인으로 탐욕, 충동성, 금품수수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부패 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패의미 기준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가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금품수수($b=-0.14$, $t=-2.60$, $p<.05$)는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5.3%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9.17$,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부패의미 기준으로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1-3은 채택된 반면에, 가설1-1, 가설1-2는 기각되었다.(표3-4)

〈표 3-4〉 부패의미기준이 경찰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34	0.12		26.73	0.000***		
가설1-1	탐욕	-0.02	0.05	-0.03	-0.41	0.675	0.34	2.94
가설1-2	충동성	-0.01	0.05	-0.01	-0.12	0.904	0.38	2.57
가설1-3	금품수수	-0.14	0.05	-0.19	-2.60	0.010**	0.33	3.01
설명력 (R ²)			0.053					
조정설명력 (Adj. R ²)			0.047					
사례수 (N)			500					
F값 (F)			9.172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2) 경찰부패 인식

경찰부패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윤리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가설2-1-1을 설정하였고, “경찰부패는 개인적 탐욕이라고 본다.”라는 가설2-1-2를 설정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부패로 엄정하게 징계처벌 받지 않는 경우 부패가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2-1-3을 설정하였고, “경찰관 윤리 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가설2-1-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2-1-1, 가설2-1-2, 가설2-1-3, 가설2-1-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개인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윤리의식, 탐욕, 충동성, 청렴교육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부패 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하였다.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충동성, 청렴교육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탐욕($b=-0.10$, $t=-2.17$, $p<.05$)은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탐욕, 청렴교육은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이고, 본 연구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4.76$,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부패는 개인적 탐욕이기는 하지만, 경찰의 탐욕 높다고 해서 경찰부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가설2-1-4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2-1-1, 가설2-2-2, 가설2-2-3은 기각되었다.(표3-5)

〈표 3-5〉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62	0.20		17.71	0.000***		
가설2-1-1	윤리의식	-0.03	0.04	-0.03	-0.70	0.481	0.71	1.39
가설2-1-2	탐욕	-0.10	0.04	-0.11	-2.17	0.030**	0.73	1.36
가설2-1-3	충동성	-0.04	0.04	-0.04	-0.96	0.335	0.76	1.30
가설2-1-4	청렴교육	-0.05	0.04	-0.05	-1.17	0.243	0.77	1.30
설명력 (R ²)		0.037						
조정설명력 (Adj. R ²)		0.029						
사례수 (N)		500						
F값 (F)		4.762						
유의도 (p)		0.001***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2) 조직문화적 요인

가. 경찰부패 인식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 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공이 원인이라고 본다.”라는 가설2-2-1을 설정하였고,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설2-2-2를 설정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운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2-2-3을 설정하였고,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2-2-4를 설정하였고, “상납은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적인 경찰조직문화 탓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가설2-2-5를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2-2-1, 가설2-2-2, 가설2-2-3, 가설2-2-4, 가설2-2-5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표3-6)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직 문화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청탁문화, 상납문화, 조직문화, 알선청탁문화, 관료문화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부패 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 조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알선청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료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탁문화($b=0.13$, $t=3.25$, $p<.01$)와 조직문화($b=0.13$, $t=4.31$, $p<.01$)는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b=-0.17$, $t=-3.50$, $p<.01$), 알선청탁문화($b=-0.10$, $t=-2.09$, $p<.05$)는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9%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12.05$,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과 뇌물제공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받는 경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부패는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와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경찰부패 인식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2-2-1, 가설2-2-2, 가설2-2-3, 가설2-2-4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2-2-5는 기각되었다.(김택, 2016)

〈표 3-6〉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2.72	0.22		11.92	0.000***		
가설2-2-1	청탁문화	0.13	0.04	0.14	3.25	0.001***	0.86	1.15
가설2-2-2	상납문화	-0.17	0.05	-0.17	-3.50	0.000***	0.73	1.36
가설2-2-3	조직문화	0.13	0.03	0.19	4.31	0.000***	0.93	1.07
가설2-2-4	알선청탁문화	-0.10	0.04	-0.10	-2.09	0.036**	0.75	1.31
가설2-2-5	관료문화	0.06	0.04	0.06	1.28	0.198	0.77	1.29
설명력 (R ²)		0.109						
조정설명력 (Adj. R ²)		0.100						
사례수 (N)		500						
F값 (F)		12.056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3) 법제도적 요인

가. 경찰부패 인식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엄중한 처벌만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가설2-3-1을 설정하였고,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2-3-2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부패는 경찰관들의 징계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라는 가설2-3-3을 설정하였고,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라는 가설2-3-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2-3-1, 가설2-3-2, 가설2-3-3, 가설2-3-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법제도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부패 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표3-7)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부패 인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량권 ($b=-0.14$, $t=-2.83$, $p<.01$)은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부패통제가능성,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0%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3.82$,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부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가설2-3-2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2-3-1, 가설2-3-3, 가설2-3-4는 기각되었다.

〈표 3-7〉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25	0.19		16.80	0.000***		
가설2-3-1	부패통제가능성	-0.06	0.04	-0.07	-1.37	0.170	0.67	1.47
가설2-3-2	재량권	-0.14	0.04	-0.15	-2.83	0.005***	0.70	1.42
가설2-3-3	경찰처벌수준	0.03	0.05	0.03	0.63	0.524	0.69	1.43
가설2-3-4	인사투명성	0.03	0.03	0.05	1.08	0.278	0.85	1.17
설명력 (R ²)		0.030						
조정설명력 (Adj. R ²)		0.022						
사례수 (N)		500						
F값 (F)		3.823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가. 경찰부패 인식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찰부패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가설3을 설정하였다.

(표3-8) 가설3-1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경찰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3-1-1, “연령에 따라 경찰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3-1-2, “직위가 경찰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3-1-3, “근무경력에 따라 경찰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3-1-4, “학력에 따라 경찰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3-1-5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설3-1-1, 가설3-1-2, 가설3-1-3, 가설3-1-4, 가설3-1-5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경찰부패 인식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성별, 직업, 지역, 학력 등은 경찰부패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찰부패 인식에 대해서 연령 중에서 60세 이후를 제외하고 19-29세(M=2.80, SD=0.89)가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에, 40-50세(M=2.50, SD=0.88)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찰부패 인식에 대해서 성별, 직업, 지역, 학력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시민들은 경찰공무원 부패인식에 대해서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비해서 경찰부패 인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3-1-2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3-1-1, 가설3-1-3, 가설3-1-4, 가설3-1-5는 모두 기각되었다.(김택, 2016)

〈표 3-8〉 경찰부패인식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 차이

가설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F	p
가설3-1-1	성별	남자	312	2.81	0.88	1.35	0.178
		여자	188	2.70	0.93		
가설3-1-2	연령	19-29세	402	2.80	0.89	2.99	0.031**
		30-40세	52	2.62	0.97		
		40-50세	38	2.50	0.88		
		60세 이후	8	3.37	0.70		
가설3-1-3	직업	무직	27	2.70	1.04	1.35	0.240
		대학생	399	2.80	0.89		
		상업	26	2.42	0.88		
		공무원	8	3.04	1.10		
		회사원	35	2.62	0.87		
		농축산업	5	3.06	0.64		
가설3-1-4	지역	서울	133	2.80	1.02	0.56	0.725
		경기	188	2.77	0.78		
		강원	45	2.73	0.84		
		충청도	94	2.69	0.92		
		경상도	29	3.00	0.95		
		전라도	11	2.63	1.17		
가설3-1-5	학력	고졸	380	2.75	0.93	1.01	0.387
		전문대졸	23	2.86	1.03		
		대졸	92	2.85	0.73		
		대학원 이상	5	2.20	0.86		

*** P<0.01, ** P<0.05, * P<0.10

출처: 김택, 2016

4. 조사분석 결과의 논의

본 연구 분석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와 시민들의 경찰인식도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개인적 요인

경찰부패 인식

경찰부패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연구에서는 부패의미기준에서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3 가설이 채택됐다. 부패의미 기준과 경찰 탐욕 간의 관련성에서는 “사건청탁으로 어느 정도 주어야 뇌물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2만 채택됐다.

경찰 충동성에서는 “명절 시 돈을 받아 경찰서 운영비를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부패행위로 생각한다.” 라는 가설1-1, “사건청탁으로 어느 정도 주어야 뇌물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2,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3 모두 채택되었다.

부패의미 기준과 경찰 금품수수 간의 관련성에서는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1-3이 채택되었다.

2) 조직문화적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공이 원인이라고 본다.” 라는 가설2-2-1,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설2-2-2,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운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2-2-3,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2-2-4, “상납은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적인 경찰조직문화 탓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가설2-2-5를 설정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가설2-2-1, 가설2-2-2, 가설2-2-3, 가설2-2-4는 채택됐고 가설2-2-5는 기각되었다.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공이 원인이라고 본다.” 라는 가설1,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설2,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운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3 이 채택됐다.

3) 법제도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연구에서는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

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2-3-2가 채택됐다.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 탐욕 간의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엄중한 처벌만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가설 2-3-1,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 2-3-2, “경찰부패는 경찰관들의 징계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라는 가설2-3-3,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라는 가설2-3-4 모두 기각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금품수수는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청렴도 조사에서는 경찰부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명절이나 사건청탁으로 돈을 받는 사례를 뇌물이나 부패로 보았지만 본 연구조사에서는 경찰운영비나 어느 정도 소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부패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경찰부패의 인식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의 청렴도 조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들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충동성, 청렴교육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경찰 충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경찰 충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충동성, 청렴교육은 경찰 충동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충동성, 청렴교육은 경찰 금품수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김택,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반적 관료부패의 주요인이 공직자 개인의 탐욕이나 욕망이 부패의 한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이번 연구조사결과도 경찰관의 개인적 탐욕이나 욕심이 금품수수를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탐욕이 높다는 것은 경찰부패로 귀인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렴교육이 경찰의 반부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직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 조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알선청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직 문화적 요

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는 경찰 금품수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경찰 금품수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경찰 금품수수는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 받는 경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 금품수수는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경찰 금품수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부패사건의 징계는 개개인의 운이 나빠서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부패는 많이 발생하지만 운이 없어 적발되고 징계 받는다고 보았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금품수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충동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재량권은 경찰부패의 주요 요인이라고 시민들은 보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부패 인식에 대해서 성별, 직업, 지역, 학력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시민들은 경찰공무원 부패인식에 대해서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비해서 경찰부패 인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09-2015년 「청렴도 조사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경찰청(2012), 「경찰채신권고안」, 경찰채신위원회, 30면.
- 경찰청(2012), “서울경찰청 유착비리”, 국정감사브리핑, 김민기의원자료실.
- 경찰청(2011), “관심직원 진단 프로그램 개발” 2011.1.30:1-67, 경찰청감사관실.
- 김상운(2012),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3호:93-112.
- 김영중(1996), 「부패학:원인과 대책」, 승실대 출판부, 9-100.
- _____(1988), “한국관료부패와 부패 방지,” 『계간경향』, 1988년 봄
- 김영중(1996), 「부패학:원인과 대책」, 승실대 출판부, 9-100면.
- 김해동(1994), 「관료 부패와 통제」, 집문당, 24면.
- 김해동(1978), “한국관료형태의 전통 문화적 요인,” 『행정논총』, 제16권 1호, 57-68호.
- _____(1983), “관료부패의 제 요건,” 『행정논총』, 제21권 제1호.
- _____(1976), “서정채신과 사회병리,” 『한국행정학보』, 제10집, 20-22.
- 김택(2016), “경찰공무원부패의 시민인식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학위논문.
- _____(1997), “한국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_____(2015), “경찰 부패의 요인에 관한 연구: 썩은 사과 가설과 조직구조를 중심”, 『한국부패학회보』, 20권 2호:45-63.
- 김택(2010),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 _____(2010), 「Corruption, Countermeasure and Global Trends」, 한국학술 정보.
- 남형수(2009),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09.
- 동아일보(2010), 4월19일. 1996.1월16일.
- 문재명(2014),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방안 연구”, 한세대대학원 경찰학박사학위논문, 2014.2:1-3.
- 박상주(2006), “경찰부패유형분석과 함의:shleifer,vishny를 응용”, 『한국행정연구』, 15권 3호:331-367.
- 박영주(2013), “경찰의 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1호 통권 제33호:175-201, 경찰대학.
- _____(2012), “경찰문화와 개인의 중화기술이 경찰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1호 (통권 46호):113-143.
- 부패방지위원회(2004), “경찰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부패방지위원회 홍보협력국, 3-173.
- 연성진(1999), “경찰분야 부패방지 대책”, 국무조정실 경찰부패연구보고서, 국무조정실.
- 유종해·김택(2010), 「행정의 윤리」, 박영사, 187면.
- 윤일홍(2009), “경찰비리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 연구”, 장기유학훈련 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6.
- 윤태범(2001), “경찰부패구조에 대한 탐색적 논의 :klitgaard모델응용”, 『한국정책학회보』, 10권2호, 87-109.

- 이상훈(2012),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국가법 연구, 제8집 2호:189-211, 한국국가법학회.
- 이하섭(2013),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제18권 제2호:113-131, 한국부패학회.
- 임지영(2010), “경찰관 청렴도 실태 및 대책에 관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조사 및 경찰관 설문 결과 비교”, 용인대 경찰학석사논문, 2010,8:8-24.
- 제민일보(2015), 경찰비리, 12월 31일.
- 전수일(2001), “경찰부패사태에 대한 연결망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5호, 161-179.
- 전수일(1984), “관료부패연구”, 『한국행정학보』, 제18권 제1호.
- 최상일(2006), “경찰부패 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제2호, 129-152.
- 홍태경·류준혁(2011), “경찰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1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지방정부학회.
- 홍태경(2011), “경찰일탈 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찰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6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111.
- Gerald E. Caiden & Naomi J. Caiden.(1997), “Administrative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7, No.3 :306-308.
- Gennaro F.Vito et al.(2011), Police Integrity: Rankings of Scenarios on the klocars scale, “Management Cops”.
- Heidenheimer, Arnold J.(2003),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Rinehart & Winston.
- J.S. Nye.(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APSR, Vol. LXII, No. 2, June:411-433.
- Johnston, Michael.(1986),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 A Reassessment,” Comparative Politics July: 463-473.
- Knapp Commission.(1972), “The Knapp Commission report” on police corruption, New York: George Braziller.
-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5),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5.
- Whitman Knapp.(1970), “Police Corruption”, Knapp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Knapp_Commission.

투고일자 : 2016. 09. 18

수정일자 : 2016. 09. 28

게재일자 : 2016. 09. 29

<국문초록>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에 관한연구

김택

공직부패는 그동안 역대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힘입어 많이 줄어들었고 정부행정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신뢰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뇌물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 하위공직자들의 생계형비리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권력형 뇌물범죄나 비리는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찰부패는 수뇌부나 간부 하위경찰관들 모두가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에서도 경찰부패는 여타 정부기관에 비해 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자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부패의 부패인식도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부패요인 분석을 살펴보기 위하여 5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들의 경찰부패인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시민의 부패인식도, 조직문화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금품수수는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시민들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충동성, 청렴교육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조직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 조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알선청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경찰부패, 부패인식도, 투명도, 생계형비리, 권력형비리